

3·1운동 104주년... 한국교회 ‘헌신·회복·일치’ 다짐



“평화와 희망의 길잡이 될 것”

3·1운동 104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3·1정신을 이어받아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앞장설 것을 한 목소리로 다짐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1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한국교회 지도자 등 1만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3.1운동 104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를 개최했다.

예배는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김인환 목사의 기도, 본교단 총회장 신현과 목사의 성경봉독,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예배에서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기념사를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위대한 대한민

국을 함께 세워 가길 바란다”며 “이웃을 섬기면서 사랑하는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 헌신하자”고 역설했다.

이순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는 제목의 설교에서 “지주 독립을 위해 앞장선 한국교회 선배들처럼 국가와 민족의 살 길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교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3.1운동 기념예배에서는 ‘3.1정신으로 평화와 희망의 길잡이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성명서가 발표됐다. 한교총은 “정부와 민간기구가 민족통일성을 기초로 평화로운 방법으로 화해와 민족통합의 길을 열어가기를 촉구한다”며 “한국교회는 미래와 평화로운 통일의 길을 여는 길잡이로 민족을 섬길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장관, 기독교계 면담... 北억류 선교사 문제 등 논의



권경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일 오후 북한 억류 선교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미수교 140주년 한국기독교기년사업회’ 임원진과 면담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이 사업회의 대표회장이자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인 이영훈 목사를 비롯한 기독교계의 대

표적 인사들이 참석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권 장관은 이 사업회가 미국 의회와 기독교계와 협력하는 등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번 면담은 사업회 측의 요청

에 따라 이뤄졌다. 통일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종교계와의 협력 등을 통해서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2013년 이후 북·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억류된 선교사들을 포함해 총 6명이다.

권 장관은 지난해 10월 통일부장관으로서 처음으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가족들과 만나 이들의 석방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교계, ‘서울고법의 동성 커플 피부양자 자격인정 판결’ 규탄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행정1-3부가 2023년 2월 21일(화)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로 가립자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기독교계의 규탄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서울고법의 판결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의 의

미에 대해 “사실혼의 성립요건이 되는 ‘혼인 의사’ 또는 ‘혼인 생활’에서의 ‘혼인’은 그 자체로서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종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으로 해석될 뿐이고, 이를 ‘동성 간의 결합’에까지 확장하여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현행법원의 해석론적으로 원고(A씨)와 B씨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이성 관계인 사실혼 부부와 동성 관계인 동성 결합 배우자 집단은 생활공동체의 상대가 이성 혹은 동성인 것만 다를 뿐이고 본질은 같은 집단”이라고 판단했다.

튀르키예 복구 막막... “교파 초월 도움의 손길”

한교총, 튀르키예 현지서 이재민 캠프에 생필품 전달

강진 피해를 겪고 있는 튀르키예에 긴급의료봉사단을 파견했던 한국교회봉사단(대표단장 김태영 목사·이하 한교총)이 재난 현장에서 튀르키예인한사역자연합회(이하 한사협)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이재민들에게 긴급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한교총과 한사협 비대위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22일 이재민 캠프를 찾아가 텐트 40개와 침낭 20개를 비롯해 생필품 1천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또 메르스주 메르신동방정교회를 방문해 복구 지원금 한화 약 400만 원을 지원했다. 메르신동방정교회는 식용유, 밀가루 등 식료품과 여성용품 등을 직접 구매해 이재민들에게 나눴다.

한사협 비대위원장 장성호 목사(안타키아개신교회)는 “현지 선교사역을 해오며 동방정교회와 친분을 쌓았던 만큼 어려운 처지



한 권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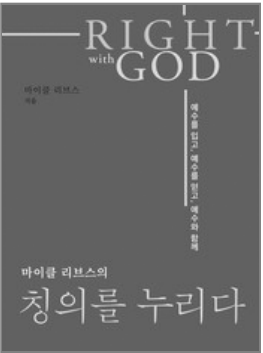
다시 십자가



다시 십자가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는 영적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사순절 40일 동안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역사임을 인정하는 귀한 고백이 터져 나오길 간절히 기대해본다.

저자/김학중 출판사/예수전도단

마이클 리브스의 칭의를 누리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오직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알고, 또 그분이 나를 나의 행위가 아닌 그분의 친절하심을 따라 대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그분 안에서 쉬게 할 수 있다. 곧 칭의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안에 있는 은혜의 여정을 시작하게 한다. 이 여정은 복음이 제공하는 용서로부터 용서를 베푸시는 복음의 창시자이신 분에게로 이어진다. 결국 칭의는 칭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

이 책은 우리의 담배합은 모두 그리스도와 그분의 충분한 의로 우심에 기초하라고 말한다. 이 어린양의 피는 그 어떤 죄보다 더 크며, 신자들은 바로 그분으로 옷 입었으며, 우리는 저 심판의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말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볼 때 지주는 사라지고,

참으로 우리는 바위처럼 견고한 확신을 누릴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답하며 ‘칭의 핵심’을 다룬다. 마이클 리브스는 예리하면서도 따뜻하게 우리의 어퍼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칭의 복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

저자/마이클 리브스 역자/황재환 출판사/도사출판 두란노

개회예배

신현파 목사
예성총회
임대총회장

파송예배

류우열 목사
예성사모회 지도교수
북대교회

주강사

신용백 목사
사기(무문)교회
북대교회

특강

천중호 박사
부산금정(무문)교회 장로
'소년심판' 드라마의
모티프가 된 후원박사

복화술강연

안재우 소정
서울광명교회 성도
국내 최고 복화술사

레크레이션

최일호 전도사
영동(무문)교회 협회전도사
VC1호

새벽예배

강대일 목사
성결(무문)대원 이사장
안양교회

새벽예배

박병원 목사
예성사모회 지도위원
신기교회

찬양인도

원웨이 미션 찬양팀

제29회기 예성전국교회 교역자 사모수련회

주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행 13:22)

일시

2023. 4. 17.(월) 오후 2시
~ 19.(수) 2박 3일

장소

소망수양관 ☎ 031-764-6052~7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건업길 122-83 (건업리54)

•대 상

예성 전국교회 목사 사모, 전도사 사모

•회 비

개인회비 없음

•주 최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전국교회 교역자 사모회

•준 비 물

성경, 찬송, 개인 세면도구(수건, 치약, 칫솔, 비누, 샤워타올), 개인 상비약

•후원계좌

국민은행 533301-01-069949
예금주: 예성사모회

•후 원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성결대학교/성결교
신학교/예성부흥사회/여전도회전국연합회/
성결대총동문회

•홈페이지

cafe.daum.net/jspw

•문 의

사 모 회 폰 / 010-3535-4662
회장 강현순(신기교회 010-2482-1002)
회계 이영실(광은교회 010-2013-6971)

수련회 시간표

	4월 17일(월)	4월 18일(화)	4월 19일(수)
5:30~6:00		기상	
6:00~7:00		새벽예배 성경 강대일 목사 (성결(무문)대원 이사장)	새벽예배 성경 박병원 목사 (예성사모회 지도위원)
7:00~9:30		세면 및 아침식사와 휴식	
9:30~10:00		찬양	
10:00~12:00		특강1 이재민 목사(신기교회 37:10) 강사: 천중호 목사	파송예배 강사: 류우열 목사 (예성사모회 지도위원)
12:00~14:00	점수 및 방 배정	점심식사	나눔과 축복 점심식사(12~13시)
14:00~16:00	개회예배 성경 강대일 목사 (예성총회장) 격려사 이영실 목사 (예성총회장) 축사: 강대일 목사 (예성대총회장)	레크레이션 VC1호 최일호 전도사 (14:00~15:00)	(13:00~) 교회로
16:00~17:30	복합소: 복음으로 통하는 소 하나님의 성사(41:10) 강사: 안재우 소정	총회 (16:30~17:00)	
17:30~19:00	저녁식사		
19:00~19:30	찬 양		
19:30~2:00	신앙부흥성회 강사: 신영실 목사(광은교회 2013-6971)		

회 장

강현순 사모
신기교회

직전회장

박혜경 사모
하남(무문)교회

1부회장

이혜림 사모
비전교회

2부회장

방은실 사모
영광교회

3부회장

한현수 사모
수남(무문)교회

1총무

김진아 사모
명동(무문)교회

2총무

조남순 사모
두명(무문)교회

협동총무

김진아 사모
총회본부

협동총무

도금숙 사모
성은교회

서기

김명화 사모
천림교회

부서기

이진아 사모
신영(무문)교회

회계

이영실 사모
광은교회

예성전국교회 교역자 사모회